

# 李朝佛畫의 研究 I

## 一 幀畫篇 上<sup>1)</sup> (1)

金 玲 珠

- |            |            |
|------------|------------|
| I. 序       | IV. 三藏幀畫   |
| II. 孟蘭盆經變相 | V. 帝釋·神衆幀畫 |
| III. 釋迦八相變 |            |

### I. 序

韓國 寺刹의 大雄殿을 비롯한 諸 佛閣에 모셔져 있는 各種 佛畫는 역시 各種 佛教 造像과 함께 重要한 禮拜 對象이 되어 主기도 하였으려니와 寺刹 内部의 莊嚴과 佛教思想 弘通의 面에서도 重要한 구실을 맡아 주어왔던 것이다.

佛畫라고 하면 寺刹의 建物 内外 壁에 그려진 이른바 壁畫라 불리울 수 있는 것과, 内壁에 걸린 幀畫로 불리울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重要한 對象으로 삼는다. 幀畫에는 그림이 그려진 바탕에 따라서 絹本, 麻本, 紙本의 구별이 있고 이 밖에 극히 드문 例로서 木刻幀畫<sup>2)</sup> 繡幀畫 등이 있다.

여기서 다루어질 問題는 다음의 다섯가지 內容의 幀畫에 限한다.

- 孟蘭盆經變相
- 華嚴經變相<sup>3)</sup>
- 釋迦八相變
- 三藏幀畫
- 帝釋·神衆幀畫

그 동안 수집한 二百餘 점의 佛畫(紙本着色) 가운데 위의 幀畫와 關係있는 62점의 그림을 附圖로 붙여서 圖樣의 經典 해석과 圖樣 上에 나타나는 信仰의 性格을 考察해 본 것이다.

1) 本稿 李朝佛畫의 研究는 1970年度 筆者의 碩士學位 論文을 다소 보충한 것이다. 李朝佛畫研究의 一部이므로 <李朝佛畫의 研究, 幀畫篇上>으로 題하였으며 그 나머지 一部를 계속 발표, 이을 예정이다.

2) 木刻幀畫는 幀畫로서 繪畫의 部類에 넣기에는 적지않은 무리가 있는 것이나 기왕에 그렇게 불려오고 있는 것이므로 分類속에 넣었으나 엄격히는 繪畫的인 性格을 지닌 彫刻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3) 華嚴經變相은 1970年 3月 史學會誌(延世大學校 史學研究會編)에 發表한 바 있어 이곳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 II. 孟蘭盆經變相

圖 1 孟蘭盆經變相은 智異山 雙溪寺 大雄殿에 있는 紙本着色의 幀畫이다. 畫幅은 가로 3m, 세로 2.6m이고 下段의 中央 銘文에

雍正六年戊申五月日, 智異山雙溪寺, 主上三殿下壽萬歲

證明 道性比丘

持殿 一禪比丘

弘性比丘

執亭 後鏡比丘

金魚 明淨比丘

最祐比丘

元敏比丘

處英比丘

信英比丘

永浩比丘

이라는 銘記가 있다.

圖 2 孟蘭盆經變相은 京畿道 加平 雲岳山 懸燈寺 極樂殿 內部 向右의 壁面에 걸려있는 紙本着色의 幀畫이다. 乾隆 55年의 銘記가 있으며 그 나머지는 不明이다.

圖 3 孟蘭盆經變相은 海南 大興寺 大雄寶殿에 걸려있는 紙本着色의 幀畫이다. 下段 銘文에

大韓光武五年辛丑十一月初三日

의 銘記가 있다.

이들 三幅의 孟蘭盆經變相은 孟蘭盆經 經說을 內容으로 한 일종의 經變 性格을 띤 圖相이다. 孟蘭盆經은 梵語로 Ullambana-Sūtra이고 바르게 音譯하여 烏藍婆拏에 가까우며 Ullambana의 原形인 Avalambana에는 倒懸의 뜻이 있다.<sup>4)</sup>

孟蘭盆經은 西晉 建興元年(313 A.D.)에 月氏三藏 竺法護가 번역한 佛說孟蘭盆經 一卷과 東晉時 譯者 失名의 佛說報恩奉盆經 一卷이 現存한다. 法苑珠林 六十二 獻佛部 第二<sup>5)</sup>에

問曰, 七月十五日既開道俗造盆獻供, 未知得造寶盆種種雜珍獻佛以下, 答曰普得, 若衣小盆報恩經, 略無寶物, 依大盆淨土經, 既有故, 十六國王聞佛說目連救母說 三劫餓鬼之苦生人道中母子相見… (下略)

이라 하여 나타나는 大盆淨土經 역시 孟蘭盆經의 異譯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宗密의 佛說孟蘭盆經疏

4) 池田澄達: 孟蘭盆經に就いて(宗教研究 新 第三之一)

5) 大正新修大藏經 第53卷, 收錄.

卷下<sup>6)</sup>에

佛說孟蘭盆經, 此經總有三譯, 一晉武帝時, 刹法師翻云孟蘭盆經, 二惠帝時, 法炬法師譯云灌臘經, 應此文云, 具飯百味五果汲灌盆器香由錠燭等故, 三舊本別錄, 又有一師, 翻爲報恩經…(下略) 이라 하여 晉武帝時刹法師譯 孟蘭盆經과 惠帝時法炬法師의 灌臘經, 報恩經 等 三譯이 있었다고 기록해 있으나 이들은 모두 失傳部에 속하는 經典들이다.

孟蘭盆經 관계의 著述 目錄으로는 高麗 大覺國師 義天의 新編諸宗教藏總錄 卷第一에<sup>7)</sup>

孟蘭盆經

疏一卷	宗密述
鈔二卷	傳奧述
科一卷	智望述
鈔二卷科一卷	遇榮述
披華鈔二卷科一卷	
禮讚文一卷	己上 智圓述
疏一卷 <small>淨源移本疏 註於經下</small>	
披華鈔二卷科一卷	
禮讚文一卷	己上 淨滯重刊
餘義一卷	日新錄
疏一卷	
補闕鈔二卷科一卷	
方法一朝	
禮讚文一卷	己上 靈鑑述
記一卷科一卷	元照述
經直釋一	思孝述

이 있고 興福寺 永超集 東域傳燈目錄<sup>8)</sup>에

- 孟蘭盆經疏一卷 三十三  
紙吉藏
- 孟蘭盆經疏一卷 元贊述  
惠淨述
- 孟蘭盆經疏一卷 惠超撰出傳缺傳法院  
木勸 智光發心集云贊述

孟蘭盆經述義一卷

이 있어 당시 孟蘭盆經 관계 研究著述의 目錄에서 그에 대한 研究와 弘通의 대강을 알 수 있다.

6) 大正新修大藏經 第39卷 收錄.  
 7) 大正新修大藏經 第55卷 目錄部, 收錄.  
 8) 大正新修大藏經 第55卷 目錄部, 收錄.

孟蘭盆經의 內容은 餓鬼道에서 倒懸의 苦에 빠져있는 亡母를 그 受難으로 부터 救出한다는 目連尊者 孝養의 德을 骨子로 한 이야기이다. 目連尊者가 六通을 얻고 道眼으로 世間을 洞察하여 餓鬼道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의 亡母를 보고 鉢에 飯食을 담아 母에게 往餉하러 했다. 그러나 飯食은 惡業受報의 母前에서 火炎으로 變한다. 目連尊者는 이를 슬퍼하여 世尊에게 亡母救濟 方法的 敎示를 哀願하였다. 世尊께서는 目連尊者의 간절한 發願을 들으시어 衆僧 自恣의 날인 7月 15日에 過去 現在 七世의 亡父母를 위하여 十方 佛僧에게 百味 飯食 五果 等を 供養할 경우 悲願의 成就는 물론 亡母로 하여금 天人의 世界에서 福樂을 누리게 한다는 뜻을 說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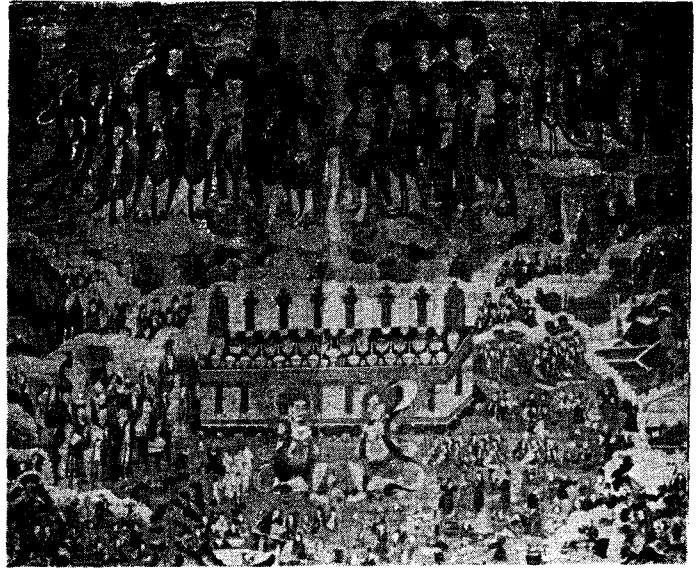


圖 1. 雙溪寺 孟蘭盆經變相

圖 1 雙溪寺 孟蘭盆經變相 中央에는 盛飯이 묘사되어 있으며 이 盛飯의 묘사는 佛說孟蘭盆經<sup>9)</sup>에 (上略)…於七月十五日, 佛歡喜日, 僧自恣日, 以百味飯食, 安孟蘭盆中, 施十方自恣僧, 願使現在 父母壽命, 百年無病, 無一切苦惱之患, 乃至七世父母離餓鬼苦, 得人天中福樂無極, 是佛弟子修孝 順者, 應念念中, 常憶父母乃至七世父母, 年月年七十五日, 當以 孝慈憶所生父母, 爲作孟蘭盆施 佛及僧, 以報父母長養慈愛之恩…

이러하여 7月 15日인 佛歡喜日, 僧自恣日에 百味飯食을 十方 佛 및 自恣僧에게 베풀어서 發願하는 바로 十方 佛僧에게 供養하는 表現이다. 그림의 上方에는 十方諸佛, 菩薩, 僧衆(十一佛, 九菩薩, 二比丘形)의 來會 參集相이 묘사되어 있다. 그림의 下方에는 餓鬼(二軀)와 現世의 諸相이 그려져 있으며 右側에는 地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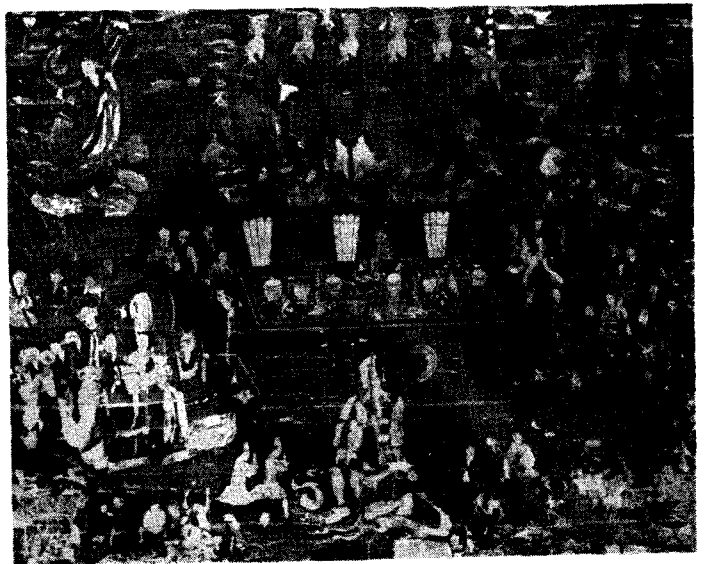


圖 2. 懸燈寺 孟蘭盆經變相

9) 大正新修大藏經 第16卷 收錄.

의 門이 보이고 劫火에 몸을 태우고 있는 亡靈의 모습이 간략하게 表現되어 있다. 銘記된 雍正六年은 英祖四年(1728 A.D.)으로서 英祖大王的 壽萬歲를 빌어 造成한 幀畫임을 알 수 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色彩의 圖 1 盂蘭盆經變相은 지금까지 보아온 다른 雍正年間の 作品과 色調가 공통하며 비교적 오랜 年代에 속하는 作品이어서 盂蘭盆經變相의 究明에 귀중한 資料가 되어주고 있다.

圖 2의 盂蘭盆經變相은 그림의 中央에 있는 盛飯 上方에 合掌의 僧衆(五比丘形)이 구름을 밟고 來會한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僧衆의 묘사는 唐畫風을 보이고 있다. 左側에 幡로 旛를 兩手 든 菩薩像, 右側에 聲聞像과 菩薩像이 있다. 圖 1 盂蘭盆經變相에서와 달리 圖 2 盂蘭盆經變相에서는 僧衆이 中心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은 佛說盂蘭盆說에

(上略) 佛告目連十方衆僧, 於七月十五日, 僧自恣時, 當爲七世父母及現在父母厄難中者, 具飯百味 五果汲灌盆器, 香油錠燭床敷臥具, 盡世甘美以著盆中, 供養十方大德衆僧……

이라는 經說의 十方大德衆僧을 強調 表現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圖 1의 盂蘭盆經變相에서 佛, 菩薩이 中心으로 묘사되어 있는 점과 다른 것이며 이 같은 差異는 畫師의 任意에 의한 經句 해석에서 온 것으로 짐작이 간다. 圖 2 盂蘭盆經變相의 下方에는 合掌의 餓鬼(一軀)와 現世의 僧衆, 俗人의 諸相이 다양한 모습으로 배치되어 그려져 있다. 그림의 下方에는 地獄圖(亡者가 형벌을 받고 있는 모습)의 단편이 묘사되어 있으며 畫幅은 일부 손상되고 色調도 다소 퇴락해 있었다. 乾隆 五十五年 즉 正祖 十四年(1790 A.D.)에 造成한 幀畫로서 雙溪寺의 圖 1 盂蘭盆經變相보다는 時代가 내려오는 作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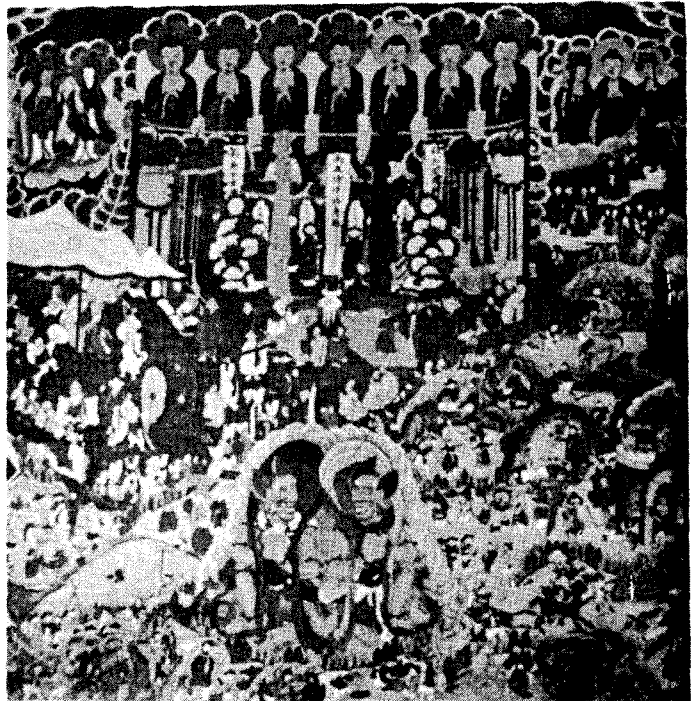


圖 3. 大興寺 盂蘭盆經變相

圖 3의 盂蘭盆經變相은 圖 1, 圖 2의 盂蘭盆經變相과 構圖上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圖 1, 圖 2의 盂蘭盆經變相에 비하여 世俗相이 상당히 많은 畫面을 접하고 있다. 僧衆에 供養하는 俗人의 모습과 喪服을 입고있는 喪制의 모습, 佛經을 轉讀하는 僧侶의 모습, 또 한편에는 복을 치며 춤추고 있는 俗人의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으므로 一見 하여서는 風俗圖처럼 보인다. 朝鮮佛敎通史 卷下, 閭巷呼旗便成國俗條에

(上略) 比等風俗今亦有之, 七月十五日 在京城, 則婦女出往佛寺假設靈牌, 燒香上供以祭父母, 祭畢燒牌, 多有泣者, 是日之夜, 輕薄無賴之徒, 成群作隊, 調戲善女, 醉毆香徒之事, 比比有之, 至

於近年，因有巡警之糾察，其弊少止也。

이라 述하고 있으며 계속

在鄉曲則是日也，農夫牧子，皆爲休息，定集會之場，爲相撲之戲，以爲樂，俗所謂過百種名日也，諸如此類，可見習俗，因佛事而成者居多也，

이라 해서 七月十五日에는 農夫牧子 모두가 休息하고 모여서 노는 習俗이 있으며 이 날 밤에는 輕薄하고 無賴한 무리들이 成群 作隊하여 어지럽게 굴었다는 당시 風俗의 記錄이 있다. 圖 1, 圖 2, 圖 3의 盂蘭盆經變相에 그려져 있는 俗人의 諸相은 七月十五日 盂蘭盆會의 이같은 風俗을 表現했던 것으로 짐작이 간다. 圖 3 盂蘭盆經變相의 上方에는 十方諸佛, 菩薩, 僧衆이 묘사되어 있고 下方에는 合掌의 餓鬼(二軀)가, 右側에는 地獄의 情景이 그려져 있다. 또 朝鮮王朝實錄 卷第一百九, 世宗 二十七年 乙丑, 七月條에

國俗，以七月十五日，就寺招魂以祠，是日無賴僧徒，入都城，於街巷，豎幡幢擊錚鼓，設卓陳饌，唱死人名號曰，百種施食，士女全集，施捨粟布，惟恐不及，卿士之家，亦有爲者，上聞之大怒，謂承政院曰，僧徒縱恣，以至此極，豫亦聞之，卿等何不以啓，又召司憲府曰，何不禁耶，詰責不已，時掌令閱齋，見僧搖鈴梵唱，似若不聞，而行，人多譏之。

이라는 記錄에서 國俗에 七月十五日 僧徒들이 都城에 들어와서 街巷에 幡幢을 세우고 북과 징을 두드리고 후를 베풀어 亡人의 이름을 불렀으며 士家의 婦女들이 모여들어 粟布를 받쳤다는 記事가 있었으며 風俗으로서 지나침이 있어 問題가 되고 있다. 이같은 記錄의 단편은 盂蘭盆經變相에 나타나 있다. 圖 1, 圖 2, 圖 3의 盂蘭盆經變相 左側 畫幅에 북과 징을 치고 있는 僧侶들이 묘사되어 있으며 그 밖에 記錄에 나오고 있는 風俗相이 여실히 묘사되어 있다.

한편 朝鮮學報 第四十四輯에 態谷宣夫教授가 發表한 <朝鮮佛畫徵><sup>10)</sup>에는 年記 萬曆十七年(宣祖 22年, 1589 A.D.)의 藥仙寺 盂蘭盆經變相과 萬曆 19年(宣祖 24年, 1591 A.D.)의 朝田寺 盂蘭盆經變相이 소개되어 있다. 朝田寺의 盂蘭盆經變相은 대체로 圖 1 盂蘭盆經相과 유사한 圖樣이다. 그러나 藥仙寺의 盂蘭盆經變相은 中央에 盛飯이 있고 그 上方에 設法相의 釋迦如來와 脇侍菩薩이 있으며 右側에는 僧衆이 묘사되어 있다. 設法相의 釋迦如來는 圖 1, 圖 2, 圖 3의 盂蘭盆經變相에서 볼 수 없었던 表現이다. 이를 통해서 보면 圖樣은 時代가 내려올수록 간략되고 있는 느낌이 짙다. 藥仙寺 盂蘭盆經變相의 釋迦如來는 舍衛國 祇樹給孤獨園에서 菩薩衆과 四百弟子를 거느리고 盂蘭盆經을 說하시는 모습의 表現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盂蘭盆經變相은 순수 繪畫上의 問題가 될 만한 美術史的인 면에서 보다는 信仰의 弘通을 위한 方便思想이 담겨있는 수용 전후의 信仰上에 보다 意義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時代 風俗相의 研究에도 큰 內容을 갖고 있어 주목되는 점이 있다.

어느 藝術樣式이던 그것이 그 時代 精神의 表現이라고 보는 것이 一般이며 그 時代가 產出하는 藝術은 그 時代 精神의 반영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盂蘭盆經信仰의 弘通에는 時代的인 생각이 있었던 것이며 그의 유행에는 결과보편타당성이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는 社會的인 背景이 問題가 되지 않을 수 없다.

10) 朝鮮學報 第44輯(昭和 42年 7月) 收錄.

原始 佛敎 經典 중 조금 늦게 成立된 것 가운데는 父母의 恩을 說하고 그 恩에 대한 報答을 強調한 經典들이 꽤 있다. 中國 佛敎에 있어서 父母의 恩에 대하여 說한 經典의 比重은 무거운 것이었으며 孝 關係의 그것은 특히 尊崇을 받았다. 그러나 佛敎의 孝에 대한 생각은 儒敎의 孝 觀念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佛敎에서는 父母를 위하여 三寶를 供하는 것만이 참된 報恩으로서 이를 大孝라 하고, 世俗的인 그것을 小孝라 規定하여 儒敎의 孝와 區別짓는다. 宗密(780~841 A.D.)은 孟蘭盆經疏에서 目連의 出家는 父母를 三塗의 苦難으로 부터 救했다고 서술하여 中國 佛敎에 있어 儒敎와 論爭의 中心이 되었던 出家不孝說에 대한 反論을 提示해 있다<sup>11)</sup>. 여기에서도 孟蘭盆經이 당시 中國 社會에 수용되기 위한 努力의 일편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孟蘭盆經 수용의 사정은 弘通 상황에도 一貫되어지는 것이 있다.

佛祖統紀 卷第三十七<sup>12)</sup>에

(大同)四年, 帝幸同泰寺設孟蘭盆齋

이라 하여 梁 武帝가 同泰寺에 행차하여 孟蘭盆經 經說의 內容에 根據를 둔 儀式인 孟蘭盆齋를 設했다 는 記錄으로 보아서 일찍이 六朝時代에 孟蘭盆齋가 設해졌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역시 佛祖統紀 卷 第三十三에

孟蘭盆供, 經言, 是佛弟子修孝順者, 應念念中常憶父母乃至七世父母, 年年七月十五日以百味飯食 安孟蘭盆中, 施佛及僧, 以報父母長養慈愛之恩

述曰, 目連託救母以興緣, 如來示奉盆以垂法, 所以教人道以報重恩也, 自大教東流, 古今帝王所以 奉盆供者爲多矣...

이라 있고 同書 卷第四十一에

貞元十五年七月, 帝幸安國寺設孟蘭盆供, 宰輔皆從

同書 卷第五十一에

代宗詔建孟蘭盆會, 設七廟神座迎行衢道, 德宗幸安國寺設孟蘭盆供

同書 卷第五十一, 太宗條에

詔街僧錄省才進孟蘭盆儀

이라는 記錄들에서 中國의 歷代 帝王들이 孟蘭盆經 經說에 따라 孟蘭盆齋를 베풀었다는 사실이 나타 나 있다. 入唐求法巡禮行記 卷第三<sup>13)</sup>, 開成 五年 七月條에

十五日赴四衆寺主請, 共頭陀等, 到彼寺齋, 齋後入度脫寺, 巡禮孟蘭盆會, 及入州見龍泉, 次入崇 福寺, 巡禮佛殿閣下諸院, 皆鋪設張列, 光彩映人, 供陳珍妙, 傾城人盡來巡禮, 黃昏自恣.....十七

日, 赴節度同十將胡家請, 共供主僧義圓, 到彼宅齋, 諸寺孟蘭盆會, 十五日起首, 十七日罷

이라 하여 入唐求法僧 圓仁의 紀行 가운데는 唐代에 諸寺에서 孟蘭盆會가 七月十五日로 부터 七月十 七일에 이르기까지 열렸었던 사실의 記錄이 있다.

한편 韓國에서는 佛敎의 初傳 以來 일찍부터 八關會 燃燈會를 비롯하여 많은 佛敎儀式이 행해졌던

11) 道端良秀: 中國佛敎における報恩思想と その實踐(印度佛敎學研究 第7卷)

12) 大正新修大藏經 第49卷, 收錄

13) 圓仁撰: 入唐求法巡禮行記 4卷(大日本佛敎全書, 遊方傳叢書第一)

사실을 記錄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孟蘭盆齋에 관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日本에서는 推古天皇 十四年 齊明天皇 三年에 孟蘭盆齋를 設했다는 記錄이 있는데<sup>14)</sup> 推古天皇 十四年은 新羅 眞平王 二十八年이고 齊明天皇 三年은 新羅 武烈王 三年이므로 이때 日本史에 記錄된 佛教의 行事라면 應當 그보다 먼저이던가 또는 그 당시 三國의 高句麗, 百濟, 新羅에서도 이미 그 先例가 있었을 것으로 보아서 틀림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記錄上 孟蘭盆齋에 관한 記事를 보게 되는 것은 高麗朝에 들어서이다. 高麗史 卷十二 睿宗 元年 秋七月 癸卯條에

設孟蘭盆齋于長齡殿, 以薦肅宗冥祐, 甲辰, 又召僧講目連經<sup>15)</sup>

同書 卷十三 睿宗 四年 秋七月 戊午條에

設孟蘭盆道場於長齡殿

同書 卷十八 毅宗 七年 秋七月 丙申條에

還新闕, 壬寅, 設孟蘭盆齋於奉元殿

同書 卷三十 忠烈王 十一年 秋七月 癸未條에

幸神孝寺設孟蘭盆齋

上同 忠烈王 二十二年 秋七月 辛巳條에

王與公主幸廣明寺設孟蘭盆齋

同書 卷三十九 恭愍王 五年 秋七月 癸巳條에

設孟蘭盆齋于內殿

이라는 記錄들로 보아서 高麗時代에 孟蘭盆齋가 자주 設해졌던 사실을 알 수 있다.

李朝時代에 들면서부터 佛教는 崇儒斥佛의 政策的인 탄압을 받아왔다. 그러나 民衆은 그들 속에 깊이 배어든 佛教的인 생각에서 쉽게 벗어날 수도 없었으려니와, 특히 婦女層 一般 庶民生活에서 佛教的 諸般 儀式이 차지한 무거운 比重이란 쉽사리 버려질 性質의 것은 아니었다. 佛教는 民衆의 生活속에서 그들을 支配하는 生命을 지닌 思想이었으며 佛事는 여전히 중요한 行事로서 계속되었던 것이다. 慵齋叢話 卷之八<sup>16)</sup>에 서술되어 있는바 四月八日 燃燈과 七月望日의 孟蘭盆, 臘月八日 浴佛의 佛事 等은 一年 中에서도 가장 큰 行事이었던 것으로 傳하고 있다. 朝鮮王朝實錄 卷第一 太祖 七年 戊寅 七月 丁亥條에

設孟蘭盆齋于興天寺

이라는 記錄이 보이며, 또 그 燕山朝時代로 내려오면서 各種 齋에 관한 佛事가 社會的 政治的 문제로 등장하여 勿齋, 設齋의 논박이 자주 나와있을 만큼 孟蘭盆齋를 비롯한 各種 齋의 여전히 盛行사정을 추측할 수 있다.

冽陽歲時記<sup>17)</sup> 七月 中元條에

14) 望月信亨: 佛教大年表.

15) 目連經은 孟蘭盆經의 內容을 素材로 한 것이고 民間說話로서 넓게 普及되었던 僞經의 하나이며 佛說大目連經 一卷은 韓國에서 된 僞經으로 보고있는 것이다.

16) 大東野乘 卷之一 收錄.

17) 冽陽歲時記(乙酉文庫本)



世傳新羅故俗，王女率六部女子，自七月既望早集大部庭續麻至八月十五日，考功多少，負者置酒食以謝勝者，相與歌舞作百戲而罷，故以七月望日爲百種節，八月望日爲嘉排日，或曰，羅麗崇佛，做孟蘭盆供遺俗，以中元日，具百種花果，供養祈福，故以名其日，二說未詳孰是，今則惟存其名而並無，其事然僧家以是日，設齋薦失魂，市井小民，相聚譙飲以爲樂，蓋略沿舊習也

이라 하여 李朝 正祖 1 때의 學者 金邁淳이 洌陽(漢陽)의 풍속을 서술한 가운데 七月 보름은 百種節로서 新羅의 옛 풍속으로 世傳한다고 하며 또 혹은 新羅, 高麗의 佛教 僧상에 의한 孟蘭盆供 遺俗이라고 한다.

孟蘭盆齋의 儀式에 대해서는 慵齋叢話 卷之二에

余家西山之陽，有尼社，甲戌七月既望，尼社設孟蘭盆會，士家婦女多歸之…

同書 卷之二에

七月十五日俗呼爲百種，僧家聚百種花果，設孟蘭盆，京中尼社尤甚，婦女全集，納米穀唱亡親之靈而祭之，往往僧人，設卓於街路而爲之，今則痛禁小戩…

이라 하여 京中 尼社에서 七月十五日에 百種의 花果를 모아 孟蘭盆會를 베푸는데 士家의 婦女들이 모여들어 米穀을 바치고 亡親의 靈을 불러 祭를 지냈으며, 往往이 僧人은 街路에 卓을 베푸는 등 李朝 初葉 孟蘭盆齋의 모습이 소상하게 서술되어 있다. 時代가 내려오과 同時에 朝鮮佛教通史 卷下에서 李能和氏도 지적해 있듯이

(上略) 此等風俗今亦有之，七月十五日在京城，則婦女出往佛寺假設靈牌，燒香上供以祭父母，祭畢燒牌，多有泣者……

이라 하여 孟蘭盆齋는 더욱 一般化되어 가는 느낌을 준다. 오늘날 음력 七月十五日이면 백중날이라고 해서 각 절에서는 亡者를 위한 祭가 올려지며 亡者의 靈牌를 佛壇에 세우고 祭가 끝난 다음 靈牌를 태우는 순서로 진행된다. 그 儀式은 절에서 지내지고 있는 일반 祭祀의 儀式과 같다. 백중날이란 어휘에 대해서는 朝鮮佛教通史 卷下에

百種亦或云百終，謂百日之終，皆俗稱也，按佛制以年之四月十五日，僧衆結制禁足謂之休夏，亦云安居，蓋即坐禪研教，工夫修養之謂也，至七月十五日，始得解制，謂之解夏自恣，有疑則稟決於師，有得則吐露於衆，故亦謂之白衆日，蓋僧以是日計臘也…

이라 해서 일반 佛教徒들 사이에 백중날로 불리워지고 있는 것은 白衆日을 이르는 것이며 俗稱 百種百終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韓國 佛教社會에 커다란 歸信을 받으며 지켜져 온 孟蘭盆經의 信仰을 圖相으로 造顯시킨 것이 孟蘭盆經變相이다. 文獻上으로는 孟蘭盆經變相 製作에 관한 史料를 찾아 볼 수 없어서 대체로 어느 때쯤 孟蘭盆經變相이 造成되었을지 매우 추측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다만 前述한 바 信仰의 弘通사정에 비추어서 그에 관한 美術이 상당수에 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孟蘭盆經 信仰과 더불어서 그의 美術도 행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은 孟蘭盆經變相은 다분히 韓國 재래의 強한 祖上崇拜思想과 結合되어서 퍼졌던 孟蘭盆經의 信仰을 背景으로 나타난 繪畫이다. 우리는 孟蘭盆經變相 가운데서 그 時代의 精神과 風俗을 발견할 수 있으며 信仰의 產物인 美術이 美術 속에 그 信仰이 지켜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계속)